

사랑하는 수녀님들께

77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 수도회는 받은 모든 선물에 대해 삼위일체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름 받은 친교의 걸음을
더디게 한 개인적 공동체적 소홀함과 태만함에 대해 자비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생명을 내어줄 줄
알고 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가장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해 받아들임, 환대,
우정, 연대, 동반할 수 있는
축복이 내리도록
선한 목자의 어머니,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 희망의 은사를 전구해주시길 빕니다.
성령께서 목자들이 성부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와 봉헌으로 시노드를 동반합니다.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
총장

2015년 10월 7일 Bundoora (Australia)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에